

제 10회 동교인재상 (東僑人材賞)

동교인재상은

수림재단의 설립자인 동교 김희수 전 이사장의 교육 이념을 받들어 대학 재학 중에 성취한 공적을 통하여 장차 사회의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재를 발굴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함으로써 많은 젊은 이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제정한 상입니다.



지원 자격

국내 4년제 이상 대학의 최종 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재학 중에 성취한 탁월한 공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의 명예 선양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선발 절차

서류심사 > 면접 > 발표 및 시상

시 상

상패 및 상금
(대상 500만 원, 금상 300만 원, 은상 100만 원)

선발 인원

25명 이내

접수 기간

2023. 9. 1. (금) ~ 10. 31. (화)

접수 방법

수림재단 사무국으로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 접수